



'춤추는 바다 분수' 환상이네 목포 평화광장 앞 바다에 설치된 춤추는 바다 분수가 지난 23일 밤 열린 시연회에서 환상적인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다. 135억원이 투입된 이 분수는 세계 최초의 초대형 부유식 해상 분수로 오는 30일부터 하루 4회 가동된다. 수반 길이는 150m, 분사 높이 30~70m에 이른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소모적 기싸움 이제 그만”

광주시-의회 신경전 확산 시민들 우려

지난 20일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의 '임기응변식 행정' 발언으로 촉발된 광주시와 시의회 간 대립이 '소모적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윤 의장의 발언 이후 이어진 광주시 간부진의 우려 표명과 윤 의장의 광주시 비판, 이에 대한 강운태 광주시장의 반박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23일 오후 기자회견과 만나 "임기응변식이라는 표현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공인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려 표명 자료를 낸 시 간부진에 대해서는 "문건을 작성해서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으며 간부회의에서 엄하게 다루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의장에 대해서는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사람이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상무소각장, 새 야구장 등에 대해서는 시장 선거에 나오기 전부터 다 들어온 정책이며, 당선 뒤 인수위원회 위원들과 깊이 숙의한 것"이라며 "그 방향성을 언급했으며, 이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시의회 의장이 임기응변이라고 한 것은 그 과정의 노력을 모두 무시해버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일 윤 의장의 발언 직후 시의회는 윤 의장의 발언이 먼저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으로 보인다. 반면 윤 의장은 여전히 시의회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 의장은 25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폐회사에서 언급한 '임기응변식' 표현은 의장 취임 이후 시민 여론과 의회 내 여론을 종합해 강 시장에 고언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폐회사를 직접 썼으며 긴급적 문구를 완곡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표현 자체에 대해 강 시장이 가볍게 받아들였다면 좋겠다"며 '임기응변식 행정'이라는 발언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일 윤 의장의 발언 직후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강 시장의 시정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가 나왔고, 21일에는 전남노 광주시부의 '전시행정·공무원 강제동원 중단' 요구가 이어지는 등 강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동시에 표면화하면서 상호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야구장·국립도서관 건립 등 1486억 필요

광주시-지역국회의원 내년 국비확보 간담회

R&D특구 육성 등도 반영 협조 요청

광주시가 새 야구장 및 국립광주도서관 건립,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개설, 황룡강 친수 레저하천 환경 조성 사업 등 신규 사업 12건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모두 1조3479억원이며, 내년 요구액은 1486억원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 호텔에서 강운태 시장과 박주선·조영택·김영진·강기정·김재균·김동철·이용섭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편성 1차 심의와 2차 심의에 대비해 지역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국비 확보에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광주시는 개방형으로 2만 5000석 규모의 새 야구장 설립을 위해 100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고, 2011년에 설계비와 시설비 각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타 시·도 지원 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국내 스포츠 기반 조성을 위해 별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설득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국립광주도서관 설립(1369억원),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개설(1739억원), 황룡강 친수 레저 하천 환경조

성(250억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엔 각각 600억원, 300억원, 250억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국립광주도서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는 별도로 호남권 주축 국립도서관 설립 필요성이 높으며,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개설은 교도소의 신속이전에 따른 차량 진출입을 위해 공사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황룡강 친수 레저하천 환경조성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해 국토해양부에서 검토중이며, 동광주~광산 나들목 호남고속도로 확장(2485억원)의 경우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운영(1500억원)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이지만 광주시는 문화콘텐츠 업체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해 조합 운영이 시급하다며 내년엔 500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화콘텐츠기술(CT) 연구원 설립 역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장기 과제로 판단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조속한 건립을 요구하며 42억원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CGI(컴퓨터형성이미지) 센터 건립(340억원),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4358억원),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육성(2400억원), 광주 R&D특구 육성(4825억원), 산업용 레이저 핵심모듈 및 부품 국산화 지원(290억원), 진곡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1538억원) 등 6건의 경우 2011년 요구액은 1590억원인데 반해 중앙부처 반영액은 303억원에 불과해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광역위생매립장 예코폐기물 에너지 타운 조성(1020억원) 등 부처한도 외 반영사업 3건과 호남고속철도 건설(11조2282억원) 등 정책적 관리 대상 사업 2건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1년 광주시 국비지원 신규 요청사업

소관부처	사업명	총사업비	내년 요구액
		13,479	1,486
문화체육관광부	광주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2,310	1
	아시아문화산업 투자 조합 운영	1,500	50
	문화콘텐츠기술(CT) 연구원 설립	1,211	42
	국립광주도서관 건립	1,369	600
	야구경기장 건립	1,000	100
	아시아미래기술 콘텐츠 개발 및 공연	55	3
행정안전부	5·18 교육관 건립	60	40
국토해양부	황룡강 친수 레저 하천 환경조성	250	250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광주천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 건설	1,200	30
국토해양부	동광주~광산(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2,485	20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 확장	300	50
	북부 순환도로 건설(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개설)	1,739	300

전남도 섬지역 숙박난 해소 나섰다

완도·여수·신안 등 7개 시군 돌며 민자유치 등 논의

전남도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섬 지역 숙박난을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전남도는 25일 섬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해 여수시를 비롯, 완도·신안군 등 7개 시·군과 전남개발공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해 펜션·콘도 등의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민간 자본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신안군을 시작으로 해당 지역을 돌며 섬을 관광자원으로 가꾸기 위한 지역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테마별 '섬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라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숙박시설 건립 및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남도는 당장 관광객 증가로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한 섬으로 여수의 사도·낭도, 거문도, 고흥의 우도, 장흥의 탕자도, 노력도, 완도와 청산도, 장도, 신지도, 진도의 상·하조도, 관매도, 신안의 증도, 불도, 도덕도, 자은도 등 14곳을 꼽았다.

전남도는 다도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숙박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섬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단계부

터 구체적인 숙박시설 유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접근성이 좋고 자연 경관이 수려한 개발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기업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자치단체가 부지를 사전 매입한 뒤 투자자에게 되파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및 민간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지설명회 및 캠퍼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우수한 섬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숙박시설이 부족해 관광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해당 시·군과 머리를 맞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명차의 자부심을 더욱 높여줄 당신
캐딜락 공식딜러로 모십니다

ALL-NEW SRX 2010CTS 2010STS

중 모집지역: 광주광역시, 문의전화: (02)3408-6388